

# Samil ACC Trend Report 2019 Vol.2

대규모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현황 ①



삼일회계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란,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 및 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sup>1</sup>

## 5 Key findings



3.6개

내부회계를 담당하는 부서 수



87%

10명 이상의 내부회계 담당 인력을 보유한 회사 비율



59%

회계사 인력 보유 회사 비율



20년 이상

내부회계관리자 2명 중 1명의 회계 관련 경력



45%

내부회계관리자 교육 이수 비율

삼일 감사위원회센터는 대규모 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현황을 두 편의 트렌드 리포트를 통해 분석한다.

본고는 그 첫번째 리포트로서 분석 대상은 2019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중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비금융사이다. 사업보고서에 공시되는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운영 인력의 총분성과 전문성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내부회계 관리·운영 부서, 관련 인력의 경력 및 교육 현황, 공인회계사 보유 여부 등이 포함된다.

후속적으로 발간할 두번째 리포트에서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통제기술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다. 전사적 통제 활동의 개수, 자동통제 비율, 새로운 기술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현황 등을 분석하고, 미국의 통제 활동 분석 자료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나아가야 할 길을 검토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2019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의 상장회사는 2020년, 1천억 이상의 상장회사는 2022년부터 감사 대상이 되며, 2023년에는 모든 상장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게 된다. 미국의 사베인즈옥슬리법과 마찬가지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는 우리나라 회계개혁의 대표적인 방안이다.

회계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회계개혁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강화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강건한 내부회계관리제도(과정)가 없다면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결과물)의 작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회계처리의 대상이 되는 거래나 사건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으며,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재무정보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인도 증가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적발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하여 위험을 관리하고,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해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외부감사법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은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반드시 포함할 내용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운영, 평가 및 보고 등에 관해 정하고 있다. 회사는 이러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사업보고서를 통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포함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외부의 이해관계자는 공시된 정보를 토대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모니터링하고, 회사의 재무정보 품질에 대해 추정할 수 있다.

#### 사업보고서 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공시되는 내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 서식)



1.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인력에 관한 사항
  - (1) 내부회계관리규정
  - (2) 당해 사업연도중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주요 개선내용
  - (3) 관리·운영조직의 책임자 현황
  - (4)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 (5)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2. 대표자가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3.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4.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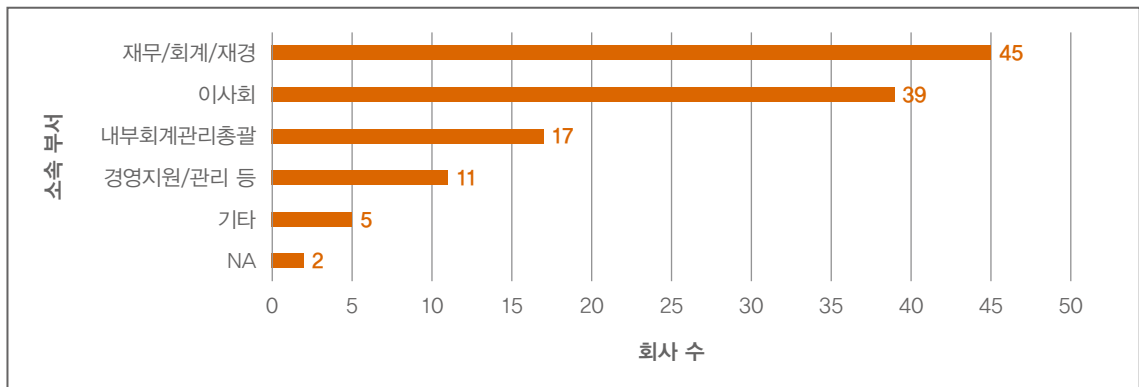
2018년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정보를 토대로, 2019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이 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공시 현황을 살펴보자. 본고의 분석 대상은 2018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 119개사이다.

## 1. 내부회계관리자 소속 부서

내부회계관리자 소속 부서는 주로 재무/회계/재경, 경영지원/관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이사회나 내부회계관리총괄로 공시한 회사도 상당수였다.<sup>2</sup> 이 경우 해당 내부회계관리자의 별도 소속 부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보고서내 다른 섹션에서 관련 정보를 찾는 방법도 있으나, 본고의 목적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의 공시 현황을 검토하는 데 있으므로 추가적인 조사는 생략하였다. 다만, 소속 부서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내부회계관리자의 직책을 통해 소속 부서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서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공시 방식의 차이는 회사 특성에 따라 부서 구성이 다르고 내부회계관리자의 소속 부서에 대한 해석이 다양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CFO가 내부회계관리자인 경우 그 소속 부서를 재무/회계/재경, 경영지원/관리, 이사회 등으로 소속 부서를 다르게 공시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자 소속 부서 공시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내부회계관리자 소속 부서



## 2. 내부회계 관리·운영 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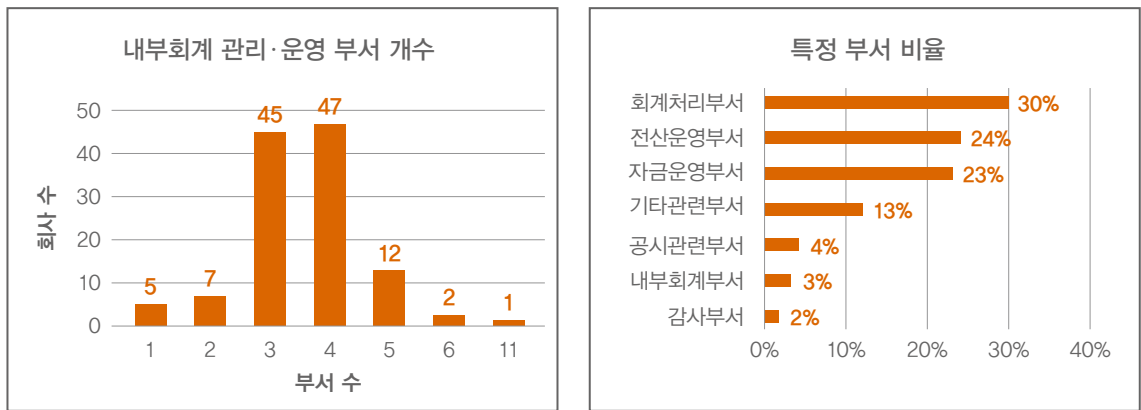
외부감사법은 회사가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둘 것을 명시한다(제8조).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실행 및 유지할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으므로, 경영진(대표이사)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및 평가하는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여기서 내부회계관리조직은 단순히 회계부서나 내부통제 전담부서에 국한되지 않으며, 회사의 재무보고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2 앞서 언급한 [별지 제3호 서식]에서 내부회계관리자의 소속 기관을 이사회로 예시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재무보고 목적에 연관되는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해당 프로세스와 주요 통제활동의 책임자를 확인하여 내부회계관리조직을 파악할 수 있다. 다수의 부서가 내부회계 관리·운영에 참여하는 회사의 경우 조직도, 프로세스 정의서 및 직무기술서를 활용하여 각 부서나 조직별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내부회계 관리·운영 부서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그림 2에 요약하였다. 내부회계 관리에 관여하고 있는 부서는 평균 3.6개로 나타났으며, 3개 또는 4개 부서가 내부회계관리에 관여하는 경우가 77%에 달한다. 소속 부서는 회계처리부서, 전산운영부서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sup>3</sup> 다만, 회사마다 부서를 구분하고 분류하는 방식이 달라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는 내부감사부서를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는 반면, 일부 회사는 기타관련부서로 통합하여 공시하였다. 그러나 공시된 정보만으로는 두 사례 중 어느 경우에 내부감사부서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더 많이 관여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보고는 회사가 공시한 정보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2. 내부회계 관리·운영 부서 현황



### 3. 내부회계 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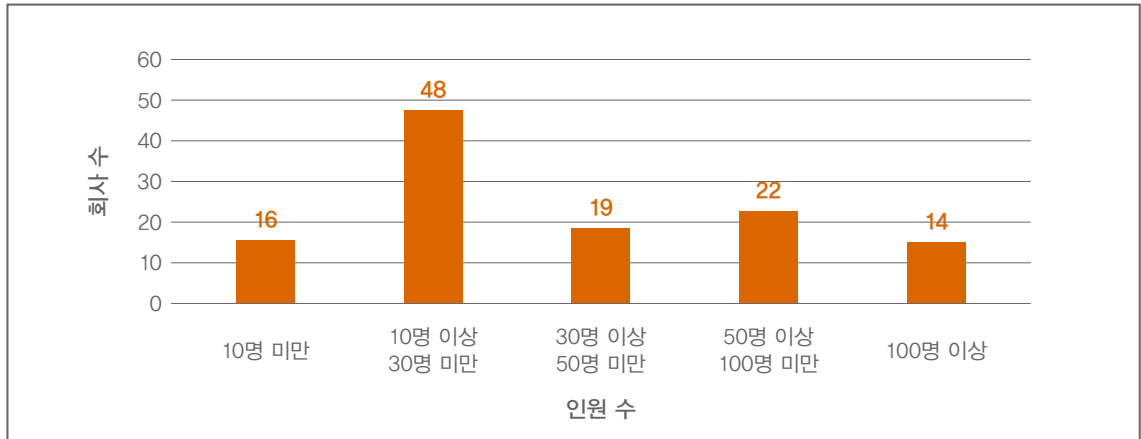
내부회계관리제도 원칙 중 하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목적에 부합하는 적격성 있는 인력을 선발하고 육성 및 관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계(재무)부서는 주기적으로 회사의 회계정책 및 절차, 내부회계관리 규정을 검토하고, 변화하는 법규와 회사의 사업 활동에 부합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보고서는 각 부서에서 내부회계를 담당하는 인력의 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시 정보를 분석한 결과, 내부회계 관리·운영 부서 현황과 마찬가지로 관련 인력 수도 회사마다 다양하게 나타났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인력이 많다고 해서 실제 내부회계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시간도 정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내부회계 전담부서가 아니고서는 모든 인력이 업무 시간의 100%를 내부회계에 투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3 앞서 언급한 [별지 제3호 서식]은 내부회계 관리·운영조직에 포함되는 부서로 회계처리부서, 전산운영부서, 자금운영부서, 기타관련부서를 예시하고 있다.

그림 3은 내부회계 관리·운영 인력 현황을 요약한 표인데, 10명 미만의 인력부터 100명 이상의 인력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분석 대상이 모두 대규모 상장회사로서 규모 측면에서 유사한 내부회계 인력을 예상할 수 있으나, 내부회계관리조직의 구성 방식이 저마다 달라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내부회계 인력이 10명 미만의 경우 내부회계 전담 인력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내부회계 인력 공시가 보다 유의미한 정보가 되려면 단순한 인원 수가 아닌 실제 투입 시간으로 환산한 인원 수 정보를 기재하는 등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내부회계 관리·운영 인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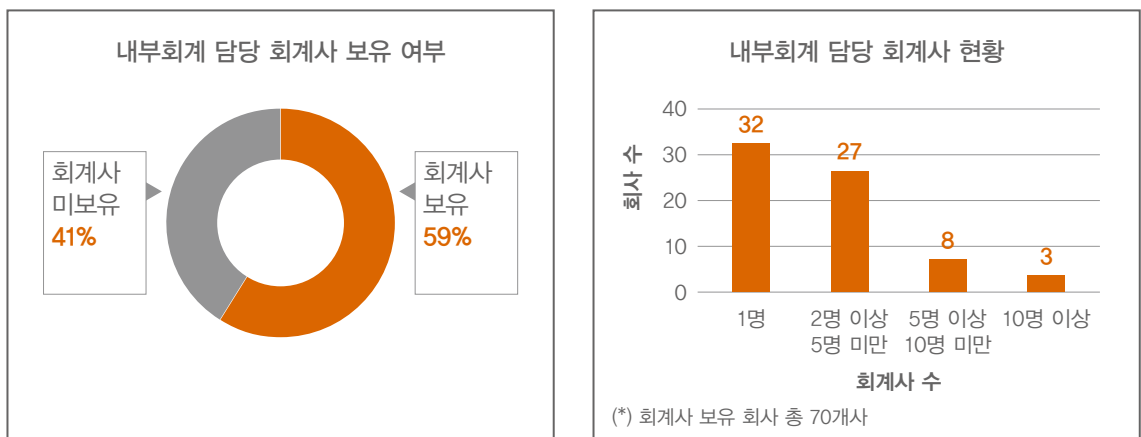


한편, 회사는 내부회계를 담당하는 인력과 함께 그 중 회계사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회계사는 회계기준, 내부통제 및 회계감사 영역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분석 대상 기업의 59%(70개사)가 내부회계 담당 회계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시하였다. 구체적인 회계사 수는 1인인 경우가 32개사로 가장 많았으나, 10인 이상의 회계사를 보유한 회사도 3곳으로 나타났다.

물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회계사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회계처리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거나 내부회계와 관련하여 아웃소싱 인력을 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사 인력의 필요성이 낮을 수 있다. 경영진은 회사의 상황에 적합한 내부회계 인력의 지식, 기술, 전문성 및 자격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제도를 운영할 것으로, 내부회계 인력의 적정성은 회사 특성 정보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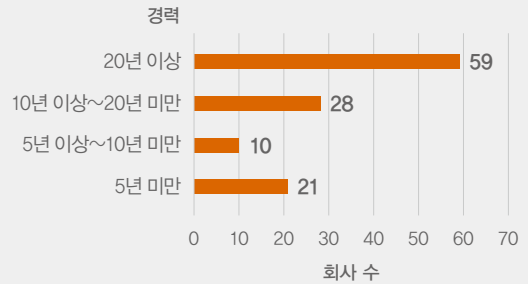
그림 4. 내부회계 관리·운영 인원 중 회계사 보유 여부 및 인원 수



## 4. 회계담당자의 경력

내부회계 관리·운영조직 정보와 함께 내부회계관리자, 회계담당임원, 회계담당부서의 실무책임자 등 회계담당자의 경력이 공시된다. 회계 관련 경력이 길수록 회계기준이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지식, 재무보고 실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여 재무정보의 신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내부회계관리자는 20년 이상 경력자가 59명으로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회계 관련 경력이 짧은 5년 미만의 내부회계관리자는 21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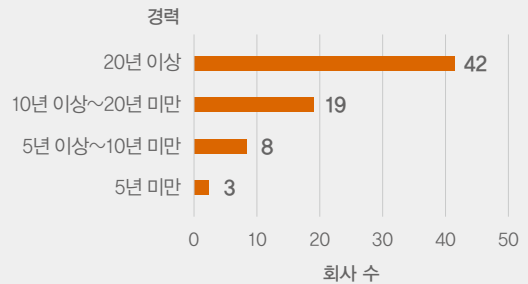
그림 5. 내부회계관리자의 경력 분포



(\*) 내부회계관리자 총 118명(분석 대상 기업 119개사 중 1개사는 내부회계관리자의 경력을 공시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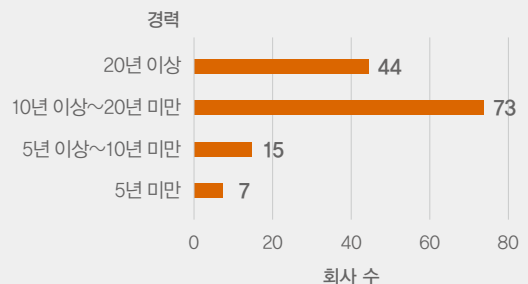
내부회계관리자가 아닌 회계담당임원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회계담당임원의 경력을 내부회계관리자와 별도로 공시한다. 분석결과, 47개사(39%)는 내부회계관리자와 회계담당임원이 동일하였고, 나머지 72개사(61%)는 별도의 회계담당임원이 존재하였다. 내부회계관리자가 아닌 회계담당임원의 경력 분포는 그림 6과 같다. 내부회계관리자의 경력 분포와 비교하여 눈에 띄는 차이는 10년 이상의 경력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그림 6. 회계담당임원의 경력 분포



대부분의 회사들(109개사)이 내부회계관리자와 회계담당임원을 제외하고 1인의 회계담당직원을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이상 회계담당직원을 공시한 회사를 포함하여 총 139명의 회계담당직원이 공시되었으며 경력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 7. 회계담당직원의 경력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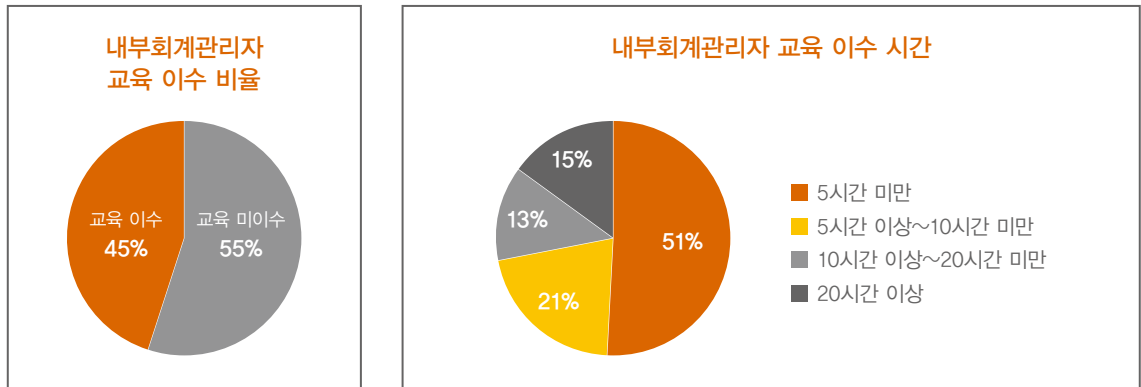


## 5. 회계담당자의 교육실적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은 내부회계관리조직의 적격성과 관련하여 (1) 재무보고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는 능력, (2)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명확한 입장과 대안을 정할 수 있는 능력, (3) 재무보고와 관련된 기술적인 발전에 보조를 맞추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회계 관련 인력에 대하여 외감법 등 관련 법규와 기업회계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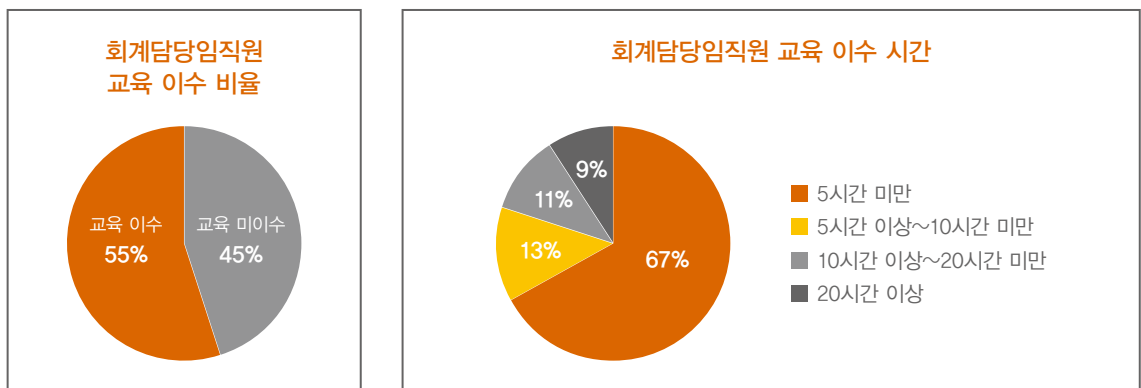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계담당자의 교육 이수 내역을 공시한다. 내부회계관리자의 경우 교육을 이수한 비율이 45%였으며, 교육 이수 시간은 5시간 미만이 절반을 차지하였다. 2018년 사업보고서부터 교육실적을 공시하다보니, 사전에 교육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공시 시점에서야 인지한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8. 내부회계관리자 교육 이수 현황



회계담당 임직원의 경우 55%가 교육을 이수하여 내부회계관리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교육 이수 시간은 5시간 미만이 67%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2019년은 교육 실적을 공시하는 두번째 해이니만큼, 회사마다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중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로운 리스 회계기준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제도에 대비한 교육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주제이다.

그림 9. 회계담당임직원 교육 이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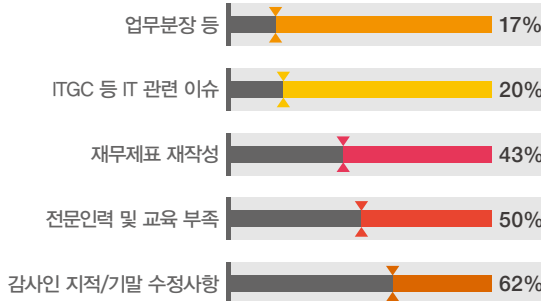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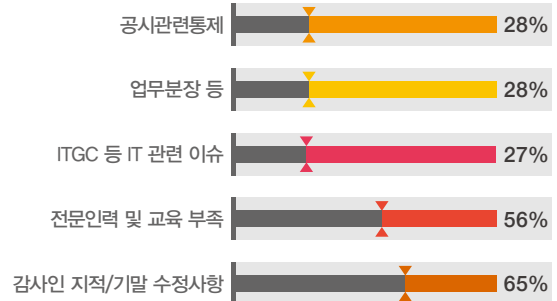
미국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부적정의견 사유 중 50% 이상이  
내부회계 전문 인력 및 교육 부족

미국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sup>4</sup>에 대한 외부감사가 의무화되고 약 15년이 지났다. 최근 부적정의견을 받은 회사의 56%가 내부회계 관련 전문인력과 이들을 위한 교육의 부족을 지적받았는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최초 도입 3년의 시점과 최근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에서 외부감사인이 발견한 오류로 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이 보고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결국 정확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충분한 인력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및 관리가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취약점 항목 - 최초 도입 3년



2017년 중요한 취약점 항목



Source: Audit Analytics

특히 우리나라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투입되는 인력의 충분성과 전문성을 공시하도록 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sup>5</sup>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실시되어 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경우, 공시 정보를 기초로 한 외부 이해관계자의 평가는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이 재무정보 신뢰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공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4 우리나라는 내부회계관리제도라는 명칭을 쓰는 반면, 미국은 재무보고 내부통제제도(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5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 인력에 관한 정보는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공시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실증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예를 들어, Choi et al.(2013)은 전체 임직원 수 대비 내부통제 담당 인원 수 비율이 높은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보고할 가능성이 낮음을 보고하였고, 유혜영 등(2012)은 내부회계담당인력의 수가 전체 임직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내부회계담당인력의 경력이 길수록 회계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주었다.



#### 참고문헌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2018.6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 2018.10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2018.10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 2019.6
- Choi, J. H., S. Choi, C. Hogan, and J. Lee. 2013. The Effect of Human Resource Investment in Internal Control on the Disclosure of Internal Control Weaknesse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32(4): 169–199.
- 유혜영, 이호영, 채수준. 201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적자원 특성이 회계오류발생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제41권 제6호): 1347–1373

## Contacts

**김재윤** 파트너  
센터장, 총괄

02 3781 3423  
jae-yoon.kim@pwc.com

**손정현** 연구위원  
센터 상근

02 3781 3284  
jung-hyun.sohn@pwc.com

**하미혜** 연구위원  
센터 상근

02 709 8599  
mihye.ha@pwc.com

[acc.samil.com](http://acc.samil.com)

S/N: 1908A-NL-005

© 2019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http://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